

이것이 명품 드라마다! 월화 · 수목 새 드라마 출격!

‘로코의 정석’ 공효진 · 조정석의 양다리 로맨스, 수목 <질투의 화신> 8월 24일 첫방

여름보다 더 뜨겁고 짜릿한 삼각로맨스로 시청자들의 연애편지를 깨울 밎고 보는 로맨틱 코미디가 찾아온다. 새 수목, 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연출: 박신우, 극본: 서숙향)은 질투라고는 전혀 몰랐던 마초 기자와 재벌남이 생계형 기상캐스터를 만나 질투로 스타일이 망가져 가며 애정을 구걸하는 양다리 로맨스를 그린다. <파스타>, <미스코리아>로 로맨틱 코미디 분야에서 저력을 입증한 바 있는 서숙향 작가가 집필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자타공인 로코의 여신 공효진이 생계형 기상캐스터 표나리 역할을 맡았다. 후에 계약직 아나운서가 되어 신분의 한계를 넘어 메인뉴스의 앵커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역할이다. 표나리는 입사하자마자 본인이 짝사랑했던 기자 이화신(조정석 분)에게 된통 실연을 당하지만 후에 방콕 특파원에서 복귀한 이화신의 마음을 얻게 되며 실연의 복수에 나선다.

극 중 조정석은 베테랑 마초 기자 이화신으로 열연한다. 머리 좋은 데다 집요한 취재실력까지 갖춘 능력 있는 기자로, 돈 많은 엄마까지 모자란 게 없는 남자다. 방콕 특파원에서 복귀 후 메인뉴스 앵커가 되기 위해 과거 자신을 짝사랑했던 표나리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데 그러다 표나리에게 덜컥 마음을 빼앗기며 알콩달콩

로맨틱 코미디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경표는 재벌3세 고정원 역할을 맡아 짝사랑 연기를 선보인다. 화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명 브랜드를 수십 개 보유한 의류회사의 차남이다. 고정원은 매너있고 허례허식 없는 캐릭터로, 불같이 광패 기질 다분한 마초 기자 화신과는 정 반대의 성격이다. 우연히 방콕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기상캐스터 표나리에게 마음을 뺏기며 본격적인 삼각로맨스를 펼친다.

그리고 이밖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아나운서 홍혜원 역할을 맡은 서지혜와 함께, 이미숙, 이성재, 박지영 등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한 중견배우들이 세련된 중년의 매력을 선보이며 극의 버팀목 역할을 할 예정이다. 늦여름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 <질투의 화신>



은 첫 방송 전에 공개된 티저 영상이 SNS 유저들에게 엄청난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상천외의 양다리 로맨스로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보여줄 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은 8월 24일(수) 밤 10시 첫 방송된다.

이준기 · 이지은(아이유)의 시공초월 러브스토리, 월화 <달의 연인> 8월 29일 첫방



새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이하 <달의 연인>)가 8월 29일(월) 첫 방송으로 <닥터스>의 명성을 이어간다. <달의 연인>은 고려 태조 이후 황권 경쟁 한복판에 서게 되는 황자들과 개기일식 날 고려 소녀 해수(이지은 분)로 들어간 현대 여인 고하진이 써내려가는 사랑과 우정, 신의의 궁중 트렌디 로맨스로, 100% 사전제작을 통해 작품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괜찮아 사랑이야> 등 따뜻하고 서정적인 연출력을 자랑하는 김규태 감독과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를 집필한 조운영 작가가 만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준기가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이자 후에 고려 제4대 황제 '광종'이 되는 제4황자 왕소 역을 맡았다. 어렸을 때 어머니인 황후 유씨로부터 얼굴 흉터를 갖게 된 왕소는 아름다운 외모를 제일로 여기는 고려에서 그 누구도 자기

얼굴을 쳐다볼 수 없도록 무섭고 잔인한 늑대왕도 같이 자란다. 그러나 고작 한 뺨의 흉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말라 잔소리 하는 해수를 만나며 여태까지 자라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을 꿈꾸기 시작한다.

이지은은 21세기 대한민국 화장품 회사 직원 '고하진'의 영혼이 수직 낙하한 신체의 주인인 10세기 고려 여인 해수의 역할을 맡았다. 독특한 현대적 사고방식, 특유의 다정하고 씩씩한 기질 등 예전의 해수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 탓에 황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들과 다양한 사건 사고로 엮이게 된다.

문무를 겸비한 인재, 고려판 뇌섹남 8황자 왕욱 역할은 강하늘이 맡아 열연한다. 왕욱은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자기 사람을 모으는데 능한 타고난 리더이자 정치가로, 해수를 통해 난생 처음 사랑의 감정을 알게 된다.

한편, 고려의 3대 황제 '정종'이 되는 3황자 왕요 역할은 홍중현이 맡았다. 이밖에도 엑소 백현, 소녀시대 서현, 남주혁, 지수, 윤선우, 강한나 등이 출연해 드라마에 빛을 더한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사극의 묘미에 타임슬립 설정으로 더욱 재미를 더한 <달의 연인>은 시공간을 초월한 로맨스와 러브스토리로 시청자의 눈길을 붙잡을 전망이다. 단 하나의 자리, 황좌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속 뜨거운 사랑과 갈등을 그릴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는 8월 29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주말 저녁 판도를 뒤집을 <우리 갑순이> 8월 27일 첫방 <상속자들> 부성철 감독과 히트 제조기 문영남 작가의 환상 케미!



우리 시대 다양각색의 결혼 이야기와 연애 이야기를 리얼하게 보여주며 공감을 이끌어낼 SBS 새 주말 드라마 <우리 갑순이>가 8월 27일(토) 저녁 8시 45분 첫 방송된다. <상속자들>, <가면>에서 세련된 연출력을 보여준 부성철 PD와 <조강지처 클럽>, <소문난 칠공주>, <왕가네 식구들> 등 인기드라마를 집필해 온 문영남 작가가 <우리 갑순이>에서 의기투합했다.

<우리 갑순이>는 우리 시대 결혼과 연애, 가족의 이야기를 갑순이와 갑돌이 가족을 통해 현실감 있으면서도 유쾌하게 보여주는 가족 드라마로, 공감 100%의 유쾌한 리얼 드라마를 지향한다.

송재림은 여자친구에게 빌붙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결눈질하는 공시 준비생 허갑돌 역을 맡았고, 김소은은 사랑과 현실에 혼란스러워하는 신갑순 역할을 맡아 10년 연인 허갑돌과 애증이 교차하는 모습을 연기한다.

갑순이의 오빠인 신세계 역은 이완이 맡아 처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의사 사위의 내면을 섬세하게 연기할 예정이고, 갑돌이의 누나 허다해 역은 김규리가 맡아 허영기 많고 천방지축인 캐릭터를 연기하며 강력한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재혼 1년차 주부이자, 갑순이의 언니인 신재순 역의 유선은 고단한 삶을 사는 재혼녀이자 차분한 만딸을 연기하며, 재순의 남편 조금식 역은 최대철이 맡았다.

이에 더해, 중년 연기자들의 내공이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갑순이의 부모로 출연하는 인내심 역의 고두심과 신중년 역의 장용은 재순, 세계, 갑순 3남매를 향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부모 세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며, 여시내 역의 김혜선은 사위인 신세계를 무시하는 도도한 장모를 연기한다. 갑돌이의 엄마로 출연하는 이보희는 갑순이에게는 까칠한 예비 시어머니 노릇

을 하는 반면, 생계를 위해 비굴함도 무릅쓰는 남기자 역을 맡아 우리 시대의 어머니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송재림·김소은 커플의 막강 호흡이 더욱 기대를 높이는 가운데, 7년 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복귀한 김태희 동생 이완의 녹슬지 않은 연기력 또한 <우리 갑순이>의 관전 포인트다. 또한 중년 배우들이 담아낼 우리 시대 부모님 모습까지, 공감 백배에 불거리 가득한 드라마가 될 전망이다.

우리 시대 결혼과 연애의 웃픈 이야기를 담아낼 새 주말드라마 <우리 갑순이>는 8월 27일(토) 저녁 8시 45분에 첫 방송된다.

평일 밤 시각변동, 준비된 킬러콘텐츠로 완전 정복한다! <꽃놀이패>, <맨 인 블랙박스>, <미운 우리 새끼> 정규 편성 확정



8월 22일자로 SBS 편성 개편안이 시행돼 평일 밤 완전 정복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평일 밤 11시대 경쟁력 강화'를 가장 큰 주안점으로 삼아 참신성과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정규 편성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는 <꽃놀이패>, 화요일 저녁 8시 55분에는 <맨 인 블랙박스>, 금요일 밤 11시 20분에는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 우리 새끼>가 편성된다. 한편, <웃음을 찾는 사람들>은 수요일 밤 11시 10분으로 자리를 옮겨 편성된다.

시청자 참여 신개념 예능 <꽃놀이패>

<꽃놀이패>(연출: 박승민)는 '시청자의,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표방하는 신개념 예능이다. 지난 파일럿 방송에서 '서장훈, 안정환, 조세호, 유병재, 김민석, 방탄소년단 정국' 등 대세 예능인들이 모두 뭉쳐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파일럿 당시 녹화현장 포털 생방송은 누적 조회수 200만 뷰를 가뭄히 넘기며 그 화제성을 입증했다.

포털을 통해 녹화 현장을 생방송하고, 네티즌들의 투표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각각 '꽃길'과 '흙길'로 팀이 나뉘어 극과 극의 운명을 경험한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보다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인기멤버와 같은 팀이 되기 위해 각종 전략과 심리전이 펼쳐지고 애원, 부탁, 배신 등 각종 음모와 암투가 난무하며 재미를 더한다. 이 와중에 동고동락하며 여기저기 피어난 브로맨스는 또 다른 볼거리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다는 또 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급 여행과 최저가 여행 정보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재미와 공익 모두 잡았다 <맨 인 블랙박스>

<맨 인 블랙박스>(연출: 신동화)는 김구라·최기환 진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철저히 파헤친다. 지난 2일 파일럿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와 함께 재미와 감동까지 전달하는 콘셉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49 시청률에서 동시간대 압도적 1위를 달성하며 높은 호응도를 기록해 프로그램 경쟁력을 증명한 바 있다.

<맨 인 블랙박스>는 김구라, 최기환의 매끄러운 진행과 함께 방송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있는 콘텐츠와 100%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그 매력을 어필한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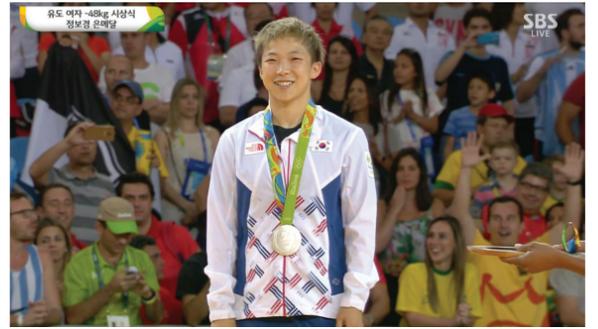
을 법한 과학 수사, 미스터리, 블록버스터, 법정 대결 등의 장르를 한 번에 만나보는 재미와 함께 여러 가지 안전 상식까지 제공하는, 재미와 공익을 모두 잡는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블랙박스 영상이 아닌, 단독으로 제보를 받아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경쟁력을 더한다. 8월 23일(화) 저녁 8시 55분 첫 방송된다.

파일럿 시청률 1위 기염! <미운 우리 새끼>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 우리 새끼>(연출: 곽승영)는 싱글족 아들을 엄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콘셉트의 파일럿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방송은 동시간대 1위 시청률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3년 만에 컴백한 한혜진과 신동엽이 MC를 맡았고, 김건모와 김제동, 허지웅과 어머니들이 출연한다. 다 큰 아들을 둔 엄마들이 세월을 뛰어넘어 쓰는 육아일기를 표방한 <미운 우리 새끼>는 그동안 엄마는 몰랐던 출연진들의 리얼한 일상이 공개되며 모자지간의 생각 차이에서 오는 재미와 더불어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운 우리 새끼>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아들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시선이다. 어머니의 시선으로 출연자들을 바라보며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들의 시선에 공감하게 되고 나의 어머니를 반추해보며 그로 인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된다. 8월 26일(금) 밤 11시 20분 첫 방송된다.

SBS 올림픽방송 제대로 일냈다! “개념방송” 시청자 극찬!



SBS가 올림픽 주요 종목에서 시청률 1위에 등극했다. 또한 차별화된 독점 콘텐츠에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한 SBS 해설진들의 감동 어록까지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주요 종목 시청률 압도적 1위!

SBS는 펜싱, 양궁, 배구, 유도, 수영, 사격 등 올림픽 주요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10일(한국시간) 중계된 남현희 펜싱 32강 경기는 무려 1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당일 국내 지상파에서 방송된 모든 올림픽 경기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어 유도 정보경 선수의 16강전 중계는 8.9%의 시청률로 타사와 무려 두 배 이상의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16일 중계된 여자배구 8강전은 9.9%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당일 지상파 3사가 중계한 올림픽 전 경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양궁 남녀 경기, 진중오 사격, 박태환 수영, 남자골프, 배드민턴 등의 세부경기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펜싱 남녀 개인전, 탁구 등이 1위를 차지하며 주요 종목 시청률 1위의 쾌거를 이뤘다.

이는 금메달리스트로 구성된 탄탄한 해설진의 역량과 안정된 중계, 그리고 리액션캠 및 현지 단독 중계 등 타사와 차별화된 구성이 시청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뛰는 방송! 단독 현지 중계로 호평

SBS 올림픽방송은 생동감 넘치는 현지 중계와 경기장 밖 감동도 생생히 전달하는 단독 인터뷰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배구 여자 예선전 첫 경기였던 한일전에서 SBS는 타사와 달리 유일한 경기장 현지 중계로 더욱 생생한 방송을 선보였다. 경기 전 선수들의 결연한 표정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내고, 경기 직후 현장에서 김연경, 양효진 선수와 이정철 감독의 인터뷰를 가장 먼저 안방으로 전달하는 등 눈에 띄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양궁 여자 단체전 8연패 뒤 믹스트존에서 선수들의 인터뷰를 단독으로 방송하며 감동의 순간을 리얼하게 담아내 경기중계에만 집중한 타사와 차별화됐다.

뿐만 아니라 유도 정보경, 안바울 선수의 은메달 시상식을 유일하게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개념방송”이라는 극찬을 받아 채널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예측적중! 공감백배 해설진의 말말말

우리 해설진들의 예측적중과 공감백배 어록들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펜싱 원우영 해설위원이 “남자 펜싱도 메달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한 후 에페 박상영 선수와 사브르 김정환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며 원 위원에 예측을 적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중계 중, “투스텝으로 공격할 것”이라 예측하자마자 김정환 선수가 투스텝으로 공격을 성공시키는 등 신들린 해설로 많은 화제가 됐다. 이는 10년 넘게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며 가족처럼 생활한 금메달리스트 출신 원우영 해설위원의 저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김태영 축구 해설위원은 멕시코전 경기를 1:0, 1점 차로 승리해 조1위로 8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한 후 실제로 말한 바와 똑같은 스코어로 한국팀이 승리하며 ‘진정한 문어’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궁 박경모-박성현 부부 해설위원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양궁 경기장 현지의 상황에 “바람은 나만 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보낸 화살에 미련을 갖지 마라” 등의 감동적이고 공감 가는 명언으로 시청자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우리 양궁 여자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자 “어느 별에서 왔냐. 우주에서 온 것 같은 실력이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양궁이다”라는 명언을 쏟아내며 어록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윤석민 부회장, 한국선수단에 특별 격려금 전달



(왼쪽 사진) 왼쪽부터 윤석민 부회장, 정몽규 선수단장

(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왕정훈 선수, 윤석민 부회장, 최경주 감독, 안병훈 선수

SBS 미디어 홀딩스 윤석민 부회장이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에 특별 격려금을 전달했다.

윤 부회장은 4일(목, 현지시간) 오전 11시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선수촌을 방문해 한국 선수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규 한국 선수단장과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 선수단 주요 임원들이 함께 했다. 윤 부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고, 정몽규 단장은 “SBS가 한국 방송사를 대표해 올림픽 파트너 방송사로서 힘써주시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또한 윤 부회장은 9일(화, 현지시간) 오후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코스 경기장을 방문하고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과 최경주 남자골프대표팀 감독, 안병훈, 왕정훈 선수 등 한국 남자골프선수단을 만나 특별격려금을 전달했다.

윤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112년만에 골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고, 최경주 감독은 “SBS가 물심양면으로 한국 골프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이어 윤 부회장과 한국 골프선수단은 클럽 하우스와 경기장을 둘러보며 훈련 상황과 시설 등을 점검했다.

기발한 콘텐츠로 올림픽 장외전쟁도 승리 잡아



■ 브라질 현지 전광판 노출

■ 하루 한줄

■ 리우倪우스

SBS가 온오프라인에서 기발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작한 재미있는 콘텐츠로 호평을 받고 있다. 남들과 다른 콘텐츠로 리우 올림픽 열기를 뜨겁게 달구며 일찌감치 올림픽 장외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았다.

먼저 ‘2016 리우 올림픽을 즐길 때 빼놓을 수 없는 8가지 재미’라는 의미의 올림픽 캠페인 <올.빠.미> 영상은 총 8편의 기획 영상으로 제작됐으며, 밤새 올림픽을 즐기는 올빠미족 시청자들을 위한 꿀팁 등을 담아 차별화된 기획 콘텐츠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한눈에 알아본다’ <리우倪우스>는 ‘나는 당신이 자는 동안 일어난 리우에서 생긴 일을 알고 있다’라는 콘셉트의 카드뉴스로, 간밤에 우리 선수들의 경기 결과와 올림픽 소식 등을 워트 있게 정리해 새벽 경기가 많은 리우 올림픽 특성상 경기 소식을 놓친 시청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리우특강>은 SBS 리우 올림픽 해설위원들의 이력 등을 재치 넘치는 키워드로 정리한 카드뉴스 콘텐츠로, 재미와 함께 해설자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루 한줄>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 결과와 관심 있는 소식들을 명언이나 감성적인 문장 등으로 소개하며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해 올림픽에서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하고 있다. 특히 경기결과를 한 줄로 정리하는 SBS 소셜 카드콘텐츠는 브라질 리우 현지 전광판에까지 노출되며 그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기 현장에서 선수들의 비하인드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올림픽 비하인드>, 경기장 밖 재미있고 감동적인 리얼 현장을 담아낸 <리우NOW>, 선수들의 감동적인 올림픽 준비 모습을 담아낸 <미니디큐>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SBS 리우 올림픽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채널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희망TV SBS 방송장비 · 노트북100번째 희망학교에 기증

<두시탈출 컬투쇼> 10년간 독보적인 청취율 1위



왼쪽부터 김건호 경영지원국장, 굿네이버스 황성주 나눔사업본부장

SBS가 방송장비와 업무용 노트북을 아프리카에 건설 중인 100번째 SBS 희망학교에 기증한다. 지난 2월 업무용 노트북 50대를 희망학교에 기증한 데 이어 두 번째 기증행사다.

16일(화) 오후 3시 21층 경영지원본부장실에서 비영리 IT 지원센터 담당자와 SBS 경영지원국장, ERP 팀장, NGO 굿네이버스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장비 18대와 업무용 노트북 50대를 전달하는 물품 기증식이 열렸다. 이 장비들은 <희망TV SBS>의 협력 NGO인 굿네이버스를 통해 아프리카에 전달된다. 이 기증 물품들은 100번째 SBS 희망학교에 설치된 미디어 교육센터와 디지털 도서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잔지바르에 세워지는 미디어 교육센터에는 TV 스튜디오 1개, 라디오 스튜디오 2개, 강당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 미디어 교육센터 내 설치될 라디오 스튜디오는 전부 SBS에서 기증한 방송장비로 꾸며질 계획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한편 SBS는 방송을 통한 모금활동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탄자니아 잔지바르 희망학교 교사들을 SBS 사옥으로 초대해 방송 제작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의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 물품 기증식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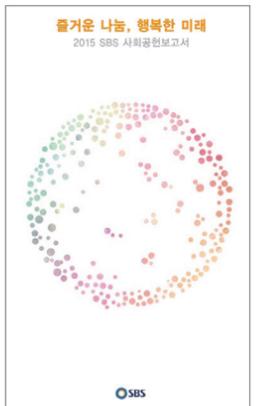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가 대한민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틀어 청취율 1위를 달성하며 라디오 프로그램 최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3라운드(분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 파워FM(107.7MHz) <두시탈출 컬투쇼>는 평일 기준 12.2%의 독보적인 청취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틀어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두시탈출 컬투쇼>는 지난 2006년 첫 방송된 이래 방송 3개월 만에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달성했고 방송 1년 반 만에 전체 라디오 청취율 1위로 올라섰다. 그 이후 무려 10년간 청취율 1위를 고수하며 라디오 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써 왔다.

SBS 사회공헌보고서 발간, 2015년 활동 집약

SBS 미디어그룹의 사회공헌 체계를 정리하고 2015년의 사회공헌 활동을 집약한 '2015 SBS 사회공헌보고서'가 발간됐다.

<희망TV SBS>, <물은 생명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등 SBS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함께 SBS 희망학교, 의료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나도 펀딩> 등 앞장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SBS의 대표 공익사업들이 자세히 소개됐다.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SDF>, <미래한국리포트> 등의 내용과 <올해의 작가상>, <하우스 콘서트> 등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 내용들이 사진과 함께 보고서에 상세히 소개됐다. 뿐만 아니라, SBS 미디어그룹 계열 회사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 역사들도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는 국/영문으로 나누어 발간됐으며 18층 SBS PR팀에 비치되어 있다.



인터뷰 이 사람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연출 허강일 차장

“<순간포착> 900회, 18년을 함께한 2MC 임성훈 · 박소현, 전무후무한 기록”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1998년 5월 21일 첫 방송된 이래 8월 25일(목)에 900회를 맞으며 방송 역사에 또 한 획을 긋는다. 그야말로 대기록이다. 18년 간 900회의 방송 동안 부침 없이 시청자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순간포착>은 900회 방송을 맞아

이제 더 이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장수 교양 프로그램이 됐다. 우리 주변의 재미있고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온 <순간포착>은 그동안 방송을 통해 소개한 사연만 무려 4,229건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출연자들을 만나왔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허강일 차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900회라는 대기록을 세운 소감은?

이 프로그램을 최초로 기획한 PD 선배들조차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모두가 프로그램을 사랑해준 시청자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다.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 프로그램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시대에, 초기의 기획의도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에 주목해온 이야기 구조에 시청자들이 공감해준

덕분이다. 유별나고 특이한 현상들도 알고 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박소현 씨가 자주 언급하는 말이, 바로 <순간포착>은 '막장 없는' 한 편의 '드라마'라는 것이다.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에 빠져 있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문득 현실감 있는 사실임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순간포착>을 18년간 지탱해온 힘이다.

계속 아이템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같다. 그 이유는?

본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다. 그동안 출연한 평범한 이웃이자 주인공만 해도 약 2,800여 명으로 인구 2만 명에 한 명 꼴로 <순간포착>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18년 동안 제작팀에 들어온 제보만 해도 약 55,000건. 시청자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야말로 그 비결이 아닐까.

오랫동안 함께 해온 MC 임성훈, 박소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프로그램처럼 두 명의 진행자가 함께 18여 년간 한 프로그램을 지켜온 경우는 한국 방송 역사에서 최초라고 알고 있다. 1998년, 28세에 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된 박소현 씨는 '순간포착'을 외치며 지금까지 왔고, 임성훈 씨는 동 시대를 살아가는 따뜻한 어른의 모습으로 <순간포착>을 진행하고 있다. 18여 년 동안 단 한 회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두 진행자의 존재 자체가 <순간포착>의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00회 동안 기억에 남는 아이템을 꼽는다면?

1999년 '부산 원숭이'와 '누렁이 구조작전'을 통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누렁이 구조작전'은

대한민국 최초로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1시간 특집방송이었다. 울가미에 목이 뿔려 죽음에 내몰린 개 누렁이를 구조하고 구조 후 사람을 극도로 피하는 누렁이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까지 다루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2000년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방송된 '부산원숭이'는 동물원 원숭이 탈출사건을 다룬 내용으로 '신창원 원숭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9개월 간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해온 원숭이를 포획하는 과정을 다뤘다.

한편, 2002년 방송된 '맨발의 기쁨'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달리는 지적장애를 가진 효자 기쁨 씨의 사연을 다룬 휴먼 스토리로, 본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이후 배우 신현준이 주연한 영화로도 개봉됐다.

2006년 방송된 '선풍기 아주머니'는 성형 중독에 빠져 보통 사람에 비해 몇 배 크고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선풍기 아주머니를 다룬 내용으로, 이후 복원 수술을 통해 주인공이 원래의 얼굴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까지 방송해 당시 순간시청률 31%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휴스턴 국제필름 페스티벌'에서 '실화에 관한 프로그램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사한 프로그램들 속, <순간포착>만의 차별화 전략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래도 굳이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꼽으려면, 진정성이 해답이 아닐까. <순간포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공의 모습을 모자이크하거나 음성변조를 통해 가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주인공의 섭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이기도 하다. 주인공을 익명화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시청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